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축하연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적전략무기발전의 정수인 대륙간탄도로켓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영웅적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친 국방과학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철불굴의 의지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핵무력건설 위업을 자랑찬 성과로 만든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개발완성하여온 잊지 못할 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반만년민족사의 대숙원을 풀어준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세계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이번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대성공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하였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이 우리 공화국을 세계최강의 로켓강국의 전렬에 올려세우기

위해 혁명에 대한 충실성, 열렬한 애국심, 고귀한 땀을 다 바치며 헌신적으로 투쟁해온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국방공업정책을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켓연구개발집단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과 같은 혁명의 핵심력량이 있는 한 두려울것도 못헤낼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직한 혁명전우인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최강의 군사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서시어 나라의 국방공업을 사회주의강국의 병기창으로 튼튼히 다져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을 온 누리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선군령장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동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게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표창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표창장,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이보다 앞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이 9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녀성에술인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서곡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기악과 노래 《빛나는 조국》,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녀성중창 《사회주의진진가》, 경음악 《공화국로켓병행진곡》,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독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타프춤 《승리의 축배》, 녀성독창 《조국과 나》, 경음악 《단숨에》, 녀성중창 《화성포의 노래》, 가무 《우리를 부러워하라》,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등이 올랐다.

희세의 천출유인을 높이 모시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 주체조선의 무궁창창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곡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쳐올리는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장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

과를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7월 10일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연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부 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목관관연회장에 나오시어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에 공헌한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유산인 백두산대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려있는 대륙간탄도로켓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축하하시었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맹주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7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후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개발의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고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한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만리대공에 성공적으로 쏘 올려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므로써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의 영웅적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이 우리 식의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한 투쟁정신과 투쟁본때로 최강의 전략무기, 주체탄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하여 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기수,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원수별 빛나는 조선

7월 17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뜻깊은 력사의 그날로부터 5돛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 땅위에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맹주국을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오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고금동서에 명장은 많았어도 우리 원수님같은 명장중의 명장은 없으시다. 적대세력의 그 모진 발악과 제재압살속속에서도 불과 수년어간에 공화국이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있는것은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그이는 담력과 군사적지략에서 최고이시다.

지난 2010년 12월 남조선에서 제2차 연평도포사격훈련이 강행되었을 때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침에 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연평도포사격훈련을 강행할 경우 인민군대의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렇게 되자 호전세력들은 연평도포사격훈련을 크게 축소, 변경하고야말았다.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은 적대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그이께서 미국과 남조선군 부호전세력이 위협천만한 북침합동전쟁연습을 한창 벌리고있던 침에 한 시기에 판문점을 찾으신 이야기도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수년전의 그날 원수님께서서는 대낮에 위협천만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을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한 판문각로대에 오르시여 쌍안경을 드시고 남쪽을 굽어보시며 적정을 알아보셨고 경계 근무중인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적아간의 총구가 대치되어있고 흐르는 공기마저 팽팽한 최전연의 최전방초소에서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선군의 퇴성으로 내외반동일호전세력에 공포를 주고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심심과 락관을 북돋아준 그이의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은 민족의 통일 력사에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현대전에 정통하시고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한 강철의 령장

이시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며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모든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 속에서 하도록 하시고 승리의 작전도를 펼쳐주시여 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광기를 단매에 제압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미국이 핵무력까지 동원하며 공화국을 위협할 때 전략로켓과 큰 화력타격임무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도 최종비준하시여 세기를 이어 벌어지는 미국과의 대결력사에 중지부름 찍고 새로운 력사

의 페이지를 열기 위한 중대결심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을 지키고 부강변영의 새 아침을 안아올수 있는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평화적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곁들이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소동에 대처하여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

답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첫 수 소탄시험과 핵무기병기화사업, 전략잠수함 탄도탄시험 등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개발할 때마다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리심없이 포연질은 화선에 계시며 나라의 핵무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글에 다 담을수 없다.

올해에만도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거리전략탄도로켓

트 《화성-12》형, 신형반향공요격유도무기체계,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켓,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 개발완성되어 핵무력을 증추로 한 나라의 군력은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게 되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지난 5년의 날과 달들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력강화와 강국건설의 길에서 놀라운 사변과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 현시대 정치거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절대적권위와 명성이 온 세상에 힘있게 펼쳐진 긍지높은 나날들이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북의 주민들이 모두 김정은령도자님을 최고지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의 능력은 바로 실력으로 판가름된다. 김정은령도자님은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한 나라를 령도한다는것은 단순히 정치행정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령도자님의 실력은 정치행정분야뿐만아니라 군사작전분야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군사작전에서 김정은령도자님의 대응능력을 시험해보려다가는 엄청난 대대앙을 불러올수 있다.》고 그이의 탁월한 정치실력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지금 공화국 최전연초소들과 군부대들에는 원수별이 빛나는 최고사령관이 승리의 영원한 기발이 되어 펄펄 휘날리고있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군대가 강하고 우리 조국이 강하며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도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7월 4일 우리 조국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단번성공했다는 소식은 우리 재로동포사회에도 환희의 메아리로 와닿았다.

주요받는 말 또한 《화성-14》이야기로 신명이다. 우리 민족이 새기를 두고 그 도록 바라던 감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기쁘고 자랑스러울수밖에 없다.

정치정세에 관심이 있는 로씨야인친지들도 엄지손가락을 내보이고 대단하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대해진 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로 가슴뿌듯해지게 하는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소식이다.

행성의 정치, 군사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7월 4일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분석했다.

그 첫째가 아주 절묘한 시간의 선택이라는것이다.

7월 4일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45돛이 되는 날이다.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통일변영을 위해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애국위업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여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미국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시려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대륙간탄도로켓의 퇴성으로 러뜨르신 7월 4일이라고 생각한다.

7월 4일을 기점으로 악마구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성공과 그 의미

리꽃듯 하던 반공화국악담들이 속 거여들어가고 《최대의 압박과 판여》니, 《군사적선택안》이니 하는 미국의 대조선붕괴압살기도는 일거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영국의 BBC, 프랑스의 AFP 등 주요 외신들은 공화국의 특별중대보도를 그대로 전하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의 변화로 동북아시아정치군사지형이 크게 달라질것이라고 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진영에 엄청난 정치대지진을 일으킨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민족의 최고리익과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 특대사변이다.

두번째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절》이다.

그 날에 우리 조국이 의미심장하고도 통쾌한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보낸것이다.

미국이 자기존재를 유지하려면 경계망동하지 말라, 우리의 핵과 탄도로켓은 협상물이 아니다, 미국의 《힘》에는 우리의 힘으로 대응해줄것이다, 아마 이런 뜻이 담긴 《선물보따리》가 아닌가 싶다.

공화국의 《선물보따리》를 받은 미국의 등골이 서늘했을것이다.

대통령 트럼프는 동에 닿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다가 골프장에 찾아갔는가 하면 미국회의원들도 논란의 개구리처럼 소란스럽게 떠들다 뽀족한 수

가 없다고 한숨만 지었으며 알라스카주지사사는 요격미사일을 더 증강해달라고 아부제기를 쳤다고 강다.

《독립절》에 수라장이 된 미국전역이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다.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여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공화국에 대고 이제 미국이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절묘하고 변화무쌍하고 단호한 공화국의 련속적인 대응조치, 대미공세에 《초대국》의 위세를 뽐내던 미국은 전전공중하고있다.

또다시 제재가 있을것이다. 수십년간 공화국에 가중되어 온 제재이다.

또 이미 지난해에 《유엔의 70년 력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제재》, 《전례없이 가혹한 제재》, 《핵포기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할 공조》라는것을 써보았고 그것의 변종인 《최대의 압박과 판여》가 지금도 이어지고있지만 바위에 닭알치기다.

지각있는 사람들이 인정했듯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공갈을 개하품만큼 도 여기지 않는다.

《군사적대안》소리도 들려온다.

핵을 가진 상대와 불장난을 한다는것은 핵볼바다에 스스로

뛰어들려는 어리석고 자멸적인 행동이라는것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더우기 세기를 이어오며 장수십년동안 칼날같은 반미적개심을 버려온 공화국이 핵탄두를 장악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 미국본토를 정조준하고있는 사실을 어쩔수 없이 인정해야 할것이다. 지금 미국은 공화국이 시험성공한 《화성-14》형이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할수 없다.》며 모순적인 소리들을 늘어놓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켓의 실체와 성능을 세계가 다 인정하고있는데 미국이 용인안한다고 해서 공화국의 위력한 전략무기가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위력은 더욱 강해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화를 해도 《핵포기》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송두리채 끝장내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산시켜려는 공화국의 지도부와 군

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단호하고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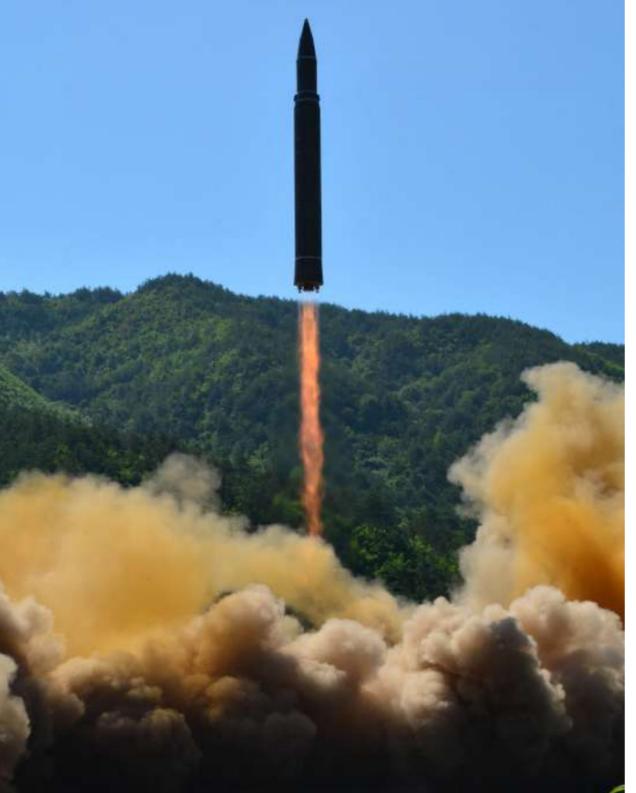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것이 어느 나라들과 다른 선군조선의 특질이고 기상이다. 공화국의 이 강경한 자세와 힘에 미국이 마

침내 무릎을 꿇을 사변적인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최후승리의 월계관은 공화국에 차례질것이다.

《화성-14》형 탄도로켓의 궤도는 승전의 자리길이고 그 속도는 만리마의 질풍이며 그 목표는 통일강국이다.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위대한 명장중의 명장을 높이 모시여 조선민족 최후승리의 만세소리가 울릴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재로시아동포 김올라지미르



사랑으로 강국의 역사를 쓰다

지금도 우리 재로동포들은 만나면 조국의 려명거리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저마다 려명거리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이런 황홀한 거리에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거리

지난 4월말 조국을 세번째로 방문했던 나는 그 기회에 새로 웅장화려하게 솟은 려명거리를 찾아보고싶은 마음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초고층, 다층살림집들을 비롯하여 황홀한 새 거리가 금방 내 눈앞에 펼쳐졌다. 두해전 보았던 미래과학자거리와는 또 다른, 조선의 문명수준이 얼마나 날마다 비약하는가를 말없이 이야기해주는 거대한 거리였다.

려명거리의 모든것이 눈에 부시도록 황홀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나의 마음을 잡아끌고 울려준것은 온 거리에 차넘치는 따뜻한 인간사랑의 정이었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즐거운 웃음과 노래소리,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주고받는 다정한 말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에 겨워하고있었다. 또 자기들과 가정의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고있었다.

인간세상이 생겨나서 수백만년, 세상은 가없이 넓어오 이처럼 따스한 인간의 정이 차넘치는 거리가 또 있을까. 려명거리에는 행성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인민이 있었다. 나에게 려명거리가 통채로 기쁨에 겨워 웃고떠드는 인민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세상을 둘러보면 초고층건물도 많고 호화찬란함을 자랑하는 거리들도 있다. 인디아에 가보아도 그런 거리가 있고 사치와 류행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프랑스에도 그런 거리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거리들에는 화려한 겉모습은 있으나 인간의 따뜻한 정이 없다. 돈에 짓눌려 사는 중압감, 빈부의 격차로 오는 박탈감, 극도의 생존경쟁에서 오는 인생의 고탄름, 인간이 아니라 돈이 마천루인 어지러운 거리의 공기, 차디찬 거리바닥과 지하철도의 외진 구석에 쓰러져있는 실업자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한숨,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적대가가 질게 풍길뿐이었다...

내가 본 뉴욕의 맨하탄도 마찬가지였다.

아찔한 건물은 하늘을 치받으며 여기저기 솟아있건만 정작 그밑에서는 실업자가 거

사는 조국인민들이 부럽다며 감동을 토로하고있다.

나 역시 려명거리를 직접 찾아가 본 그날의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있다.

넘치는 거리

리를 해매고 로숙자들이 도처에 널려있었다. 마천루를 일떠세운것은 땀흘리는 로동자들이지만 그들은 거리를 해매고 호사스러운 건물들에는 대기업과 은행, 부자들이 틀고앉아있었다. 인간우에 돈이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어쩔수 없는 풍경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조선의 려명거리에는 어느 집을 가보나, 거리안의 거리를 거닐어보나 평범한 시민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넘친 목소리들만이 들려오고있었다. 려명거리 그자체가 인민이 안겨사는 행복의 큰집이었던것이다.

구름이 손에 닿을것만 같은 70층 초고층살림집에서, 55층, 50층 아파트의 살림집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문명을 향유하는 주민들도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다며 교육자, 연구사, 과학자들에게 덩실한 새 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고 한다. 철거민들에게도 맨신참으로 입사중이 차례였다. 황홀한 새 집의 열쇠들을 받아 안고 궁궐같은 집안에 이사짐을 편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나라가 돈이 많아서 이런 큰 집들을 지어 수천세대의 주민들에게 한낱한 새집들이기쁨을 안겨주었겠는가. 돈보다도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인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어서 옹근 하나의 새 거리를 통채로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조치를 취해준것이다.

우리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려명거리의 궁궐같은 집들에서 사는 《특권층》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분계선남쪽에서는 인민들이 《개, 돼지》로 취급당하여 분노가 초보로 타올랐었는데 얼마나 대조적인 처지이고 운명인가.

려명거리에서 국가의 인민사랑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세대나 맨 웃층에 사는 세대나 똑같이 흘러들고있었다. 상업봉사망들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특색있고 편리하게 꾸려져있었고 거리의 화단, 록지들에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지성이 어려여있지 않은데가 없었다.

그러니 모두가 감격해하지

않을수 없다. 한낱한시에 국가의 큰 사랑을 똑같이 받은 려명거리주민들이 너도나도 행복에 웃고 정에 겨워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의 더 큰 행복을 꿈꾸지 않을수 없다.

나 역시 비록 내가 받은 집은 아니지만 이런 따뜻한 사랑과 정이 흐르는 거리, 새 보금자리에서 집주인들과 어울려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자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과 속삭이고 싶었다. 당신들, 조국인민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또 보며 나는 려명거리를 밟아 밟아도 걸고 또 걸고있었다.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지고 하늘도 잠들려는지 어둠이 짙어가는데 려명거리에는 어둠이 깃들지 않았다. 각종 아름다운 불장식들이 거리를 환히 밝혀주었던것이다. 불빛에 반사되어 은은하면서도 더욱 황홀하게 안겨드는 아파트들과 거리의 모습은 그것대로 장관이었다.

려명거리의 입구에는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축원하는 탑이 환한 조명을 받으며 솟아있었다. 지적에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던 날 장군님께서 조선을 빛내시길 애국의 맹세를 다지시었다는 룡남산마루가 보였다. 그 너머로 금수산태양궁전이 금수산을 배경으로 승엄하

세상에서 제일 황홀한 려명

내 60평생을 해외에서 살아오면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돌아보고 건설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있다. 건물 한채를 세우는데도 품이 많이 드는데 옹근 하나의 새 거리를 그것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운다는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하나의 신도시를 방불케 하는 이만한 규모의 려명거리를 건설하는데 자금과 로력, 설비와 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는 심분 리해가 간다. 거기에다 공화국은 평온한 환경에서 이 거리를 건설한게 아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최악의 제재속에서 거리를 완공했다.

적대세력들의 류례없이 악랄한 제재소동을 맞받아 려명거리건설의 통장훈을 부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고 보면 그분의 담력과 배짱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이께서는 적대세력과의 마지막 최후대결전에서 승리를 굳게 확신하시고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그 구상을 짚

게 어리여왔다. 조금 더 멀리의 대성산봉우리에서는 혁명렬사들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나라를 찾는 성전에 한물다 바친 투사들은 지금 그 앞으로 넓게 뻗어간 이 불밝은 려명거리를 바라보고있겠지.)

조국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을 한눈에 다 보는것만 같았다. 항일혁명의 뿌리에서 솟아난 인민공화국, 공화국의 전력사를 관통하는 줄거리는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다.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좌우명은 이민주의이였다. 수령님들께서 맞고보내신 헌신과 로고의 무수한 낮과 밤들은 조국땅위에 인민사랑으로 찬란히 수놓아져 있다.

그 해빛같은 사랑이 오늘도 조국강산에 그득히 넘쳐나고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회한하게 솟아난 려명거리에도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려명거리. 정녕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랑의 거리, 행복의 거리였다.

가슴은 흥분과 하많은 생각으로 끝없이 뿔뿔이 터지는데 어디선가 속삭이듯 부르는 정겨운 노래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조국인민들이 즐겨부르는 군 하는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야》였다.

은 기간에 현실로 이루어놓으시였다.

려명거리를 일떠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고폶치고있었던가. 그것은 불보다 더 뜨거운 인민사랑이었다.

언제인가 나는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최고령도자님께서 하시었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들은적이 있다.

나는 장군님께서 말하고 가진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옵니다.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슴을 쿵 울려주는 인민사랑의 금언이였다.

인민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는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행복과 문명을 안겨주시려고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에서 인민이 사는 이런 환한한 거리를 일떠세워주시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주석님의 하늘에 닿을 인민사랑, 장군님의 바다보다

넓은 인민 사랑을 합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야 해야 할것이다.

려명거리가 착공의 첫삽을 박던 때 조선의 분계선남쪽에서는 미국이 벌리는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의 포성이 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있었다.

조선을 향하여 한쪽에서는 최대의 제재와 압력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제 비로 쏟아질지 모를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들고있었지만 북에서는 제재의 사슬을 박차고 전쟁포성을 짓누르며 려명거리건설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려나왔다. 그것은 인류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랑의 창조대전이였다.

사랑은 검은 이긴다고 하였다.

내가 들은데 의하면 려명거리의 불꽃튀는 건설장은 말그대로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더 큰 행복을 안아오려는 사회주의 수호전, 적대세력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전장이였다고 한다.

건설의 큰 몫을 담당한 군인건설자들은 건설기재들을 총대처럼 들어쥐고 기초를 닦고 아찔한 초고층건물들도 단숨에 고지를 점령하듯 불이 번쩍나게 일떠세웠다.

무엇이 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에게 70층 외벽타일붙이기도 불과 13일만에 끝내게 하는 놀라운 힘을 주고 최악의 제재와 위협속에서도 불과 아홉달만에 옹근 하나의 새 도시와 맞먹는 거리를 일떠세우는 건설신화를 창조하게 해주었는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구상을 조국땅위에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려는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충정의 마음들이였으리라.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필요한 대책도 다 취해주시였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려명거리건설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힘도 안겨주시였다.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던 지난 3월 중순에는 이른 새벽에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어 멋있었다,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자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

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니 그이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말과 글로 다 칭송할수가 없다.

이런 령도자를 받들어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창조적 대전이 힘차게 벌어졌고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우리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더욱 보란듯이 일떠세우는가를 보여 주려는 건설자들의 드높은 각오와 열정이 낮과 밤을 이으며 줄기차게 분출되었던것이다.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은 온 건설장을 불도가니처럼 타번지게 했고 시간마다, 분마다 건설장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는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게 했다.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인민들에게 온갖 복을 다 안겨주시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최고이고 행성에 극락세계가 있다면 령도자의 사랑의 해빛이 온 나라 가정들에 따스하게 비쳐드는 우리 조국이 진짜 사랑의 극락세계라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조국인민들은 너도나도 말하느게 아닌가. 원수님이 제일이고 원수님의 정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내가 조국을 다녀간지 여러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려명거리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은 조금도 지워지지 않고 내 마음을 평양으로 끌고와 달려가게 해주었다.

려명거리!

정말 그 거리는 이름그대로 승리의 동이 터오는 거리이다. 위대한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거리이고 세상에서 제일 밝고 행복한 인민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거리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조선의 일심단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강한가를 알려면, 조선이 왜 그 모진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자위의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가를 알려면 누구나 조선의 려명거리를 찾아가 보아야 할것이다.

려명거리는 행성의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를 말없이 보여 주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려명, 최후승리의 환희로운 려명이 어디서 밝아오고있는가를 가슴찌릿하도록 말해주고있다.

김련수 (필자는 재로동포임)



송고한 민족애와 동포애

몽양일가가 전하는 송고한 통일애국의 경륜

소북단장을 한 로인은 지난 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일을 맞으며 각계층 사람들과 나란히 창덕학교를 찾아 교정에 모셔져있는 주석님의 동상에 삼가 꽃다발과 함께 경묘의 인사를 드리였다.

나이 80고개를 가까이하지 만 할머니는 퍼 정정하다. 인생력정의 감미로웠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있었다. 해방전 서울에서 생활한 어린시절의 이야기들도 어제일처럼 생생히 회고하고있었다.

몽양 려운형의 머느리인 로현숙이었다.

로인의 가정이 백두산절세위인들과 연고가 깊은 일가라는 것을 이웃들도 알고 못사람들이 다 아는데이러한 우리와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시금 들을수록 감동이 깊고 눈물겨웠다.

그가 한 이야기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지난날 일제지배하의 식민지민족의 치욕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려운형은 흥안의 나이에 애국의 뜻을 품고 반일독립활동에 몸을 잡그었다. 3.1운동에도 뛰어들어 독립만세도 불렀고 민족의 자결권을 이루고저 국제회합에도 달려가 식민지약소민족의 실음과 분노를 터치고 독립소망을 절규하기도 하였다. 꿈속에서도 광명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왜벌복국》을 애라게 부르짖었어도 그가 소원한 광휘로운 빛과 나라의 독립은

로인하였다.

칠칠이 암흑이 드리운 그 시기 려운형의 애라는 가슴에 비쳐든 민족재생의 빛은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전설적위인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었다. 보천보전투를 조직하시고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신 젊으신 김일성장군님의 출중하고 령활무쌍하신 령군술에 탄복한 려운형은 그이를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신뢰하며 동경하게 되였다.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려운형의 숭배심은 해방후 더욱 두터워지고 깊어지였다.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주석님을 열렬히 숭배한 려운형은 남조선의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도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원천리 북행길을 단행하여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무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전국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시는 분망한 속에서도 그를 만나신 주석님께서는 험한 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였다 하시며 국내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고생을 많이 한 애국자라고 그의 로고를 헤아려주시였다. 려운형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

하신 주석님께서서는 외세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남조선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외세를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을 믿어야 하며 정권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의 단합으로 건국위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안목, 비상한 통찰력, 해박한 식견,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주석님의 거룩한 품모와 고매한 인품에 반하여 장군님의 말씀을 접하니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우리 조선이 나아갈 길이 환히 내다보인다

고 감동을 토로한 려운형은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선에 대통운이 났다고 심경을 터놓았다. 그의 말은 민족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분출이였고 어제날 식민지조선의 풍운아에게 참된 인간의 넋을 주시고 보람찬 통일애국의 길을 견도록 힘을 주시고 고무를 주시는 주석님께 드리는 큰절이었다.

그후 려운형은 주석님의 뜻대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심신을 다 바치였다. 외세와 결탁한 남조선의 반통일, 반민족세

력들에 의하여 1947년 7월 그가 희생되었을 때 누구보다 애석해하신 주석님께서서는 선생의 추도식을 잘 거행하며 그의 피살에 항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시어 통일애국에 바친 그의 생이 민족의 추억속에 영생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기울이시였다.

한없이 송고한 덕망과 고결한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언제나 려운형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온갖 육친의 정으로 따져 돌보시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일애국의 한길을 견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어느 해 설날 새해의 정사를 펴시는 신년사를 하셔야 할 분분초초가 귀중한 그 시각에도 중대사를 미루시고 려운형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푸신 주석님이시다. 세상에 신년사가 늦어진 사연으로 알려져 전해지는 그날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려운형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주석님께서서는 어느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가는 만

의 묘소에 가보도록 하라고 이 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려운형선생의 묘에 화환을 보내려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려운형의 묘소에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밀물처럼 차오르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려연구가 서있었다. 북과 남의 온 민족을 감동에 휩싸이게 한 송고한 사랑과 의리의 전설같은 일화이다.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유혼을 받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려운형 사망 50년이 되는 1997년 7월 19일 모란봉극장에서 추모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2002년에는 8.15민족통일대회참가를 위해 서울에 나가는 려운형의 둘째딸 려원구(당시 조국전선 의장)가 아버지의 묘소도 찾고 남쪽에 있는 가족, 친척들도 만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은정에 의하여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서 순직한 려운형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고 그의 애국충정을 형상한 예술영화도 창작되어 민족이 다 아는 애국렬사로 빛나는 삶을 누리게 되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려운형일가에게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정력을 다한 려운형의 아들과 딸이 뜻밖에 운명하였을 때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장례를 잘 치르며 그들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려운형과 그의 일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의리는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길이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이 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을 줄기차게 계승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속에 려운형일가의 통일애국의 삶은 오늘도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녀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미력하게나마 혼신을 다 하려는것이 아들, 손자, 손녀들의 마음이라고 로현숙할머니는 말끝을 맺었다.

려운형은 70년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은총은 세월을 넘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으며 그 손길아래 려사의 자손들도 애국충정의 길을 걷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아이들의 집, 행복의 요람



얼마전 조국방문의 날을 보내는 한 해의동포를 만난 기회에 조국방문시 제일 인상에 남는것이 무엇이었는가고 물은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대뜸 공화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집이 많은데 모든것이 다 궁전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아가보니 궁전은 마치도 두팔을 벌려 아기를 품어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어린이들이 활발하고 건강해서 마음껏 배우고 뛰노는것을 보니 궁전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성장과 배움의 모든 면에서 표준으로 되는 훌륭한 아이들의 집이라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집!

그가 꼽는 이들을 하나하나 따라 내려가라니 공화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집이 정말 많다.

육아원과 애육원들, 학생소년궁전, 소년회관들에 이어 아동병원과 소년 단야영소들...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집들은 제일좋은 명당자리마다에 제일 멋있고 훌륭하게 들어앉아있고 거기에 하나같이 사랑의

문패들이 걸려져있다.

새라새로운 문명을 펼친 행복의 집들이 계속 일떠서 문을 열고 아이들을 어서오라 부르고있다.

아이들의 집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마음껏 배우고 재능을 꽃피우며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고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아이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토록 세심히 돌봐주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의 관심속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한갓 부담스러운 존재로, 갖은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어 불행에 떨고있는 모습을 이 행성의 구석구석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전쟁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되고있는것인가. 동토대에 버려진 씨앗마냥 전란에 쓰러지고 굶어죽고 타락과 범죄의 길에 굴러떨어지는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들...

부모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희망의 나래를 펴야 할 꽃망울같은 어린아이들이 집

이 없고 부모가 없어 배우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고사리같은 손을 내밀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것이 《문명》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집없고 부모없는 약 1억명의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돈에 환장한 인신매매거래꾼들의 주요한 수탈관여로 되고있으며 해마다 수십만명의 어린이들이 현대판노예시장에서 물건처럼 매매되고있다.

《인권》이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악설이 그칠새없는 남조선에서 어린이문제, 고아실태는 더욱더 참담하기 그지없다.

부모가 있어도 버림받아 버려지는 고아들아닌 고아가 해마다 수천명씩 생겨나는곳이 현시 기 남조선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조차도 자기들의 따뜻한 사랑의 집에서 근심걱정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자기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나가고있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이 땅우엔 아이들의 궁전이

그리도 많이 솟아나게 되었으며 무엇으로 하여 아이들의 집들마다엔 사랑과 정이 흐르고 이 세상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행복이 베풀어지고있는것인가.

단순히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때문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이 땅우에 넘쳐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백을 주고 천을 주고 고도 더 주고싶어하시는 원수님의 그 사랑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되어 오늘도 이 땅우에 아이들을 위해 새 집이 끝없이 솟아나고 천만금, 억만금의 재부가 아낌없이 바쳐지고있기 때문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공화국이어서 저 푸른 하늘과 더불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후대들은 나라의 미래로 더 활짝 꽃피어나는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누구에게나 담당의사가 있다

공화국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태어나서 일생동안 담당의사에 의해 건강보호를 받는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을 담당하여 예방치료를 해주는 제도이다.

의사들은 가정세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늘 관찰하고 병이 나지 않게 예방치료대책을 세우며 일단 생긴 병은 제때에 치료하여 큰 병이 되지 않게 한다.

이처럼 의사담당구역제는 예방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또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로서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된지 얼마 안되는 1948년에 벌써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고 도시와 농촌지역들에서 그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

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뿐 아니라 전후 도시에서부터 의사담당구역제를 완성하고 농촌에서 점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단위들에 진료소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들을 많이 배치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로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기 전인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의사담당구역제가 빛나게 실시되었다. 이것은 공화국의 송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뚜렷한 중시로 된다.

그후 중앙에서부터 각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가진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구강의료봉사망 등 여러가지 의료봉사망이 완비되고 의사대렬이 늘어나는데 따라 의사담당구역제는 점차 20호담당제, 10호담당제, 5호담당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생산단위들에서는 의사들에게 공장, 기업소의 직장 혹은 갯을 담당시켜 직장(갱)담당제의 형태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면서 로동환경조건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병예방대책을 세우며 종업원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도록 하였다.

이렇듯 생활단위와 생산단위들에서 의사담당구

역제사업이 심화되어 담당의사들이 직접 가정세대들과 로동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의 로동 및 생활환경조건과 생활관습, 체질상 특성에 맞게 병예방대책도 세우고 건강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공화국에서 의사담당구역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20세기 증엽에 이르러 질병이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유전학적특성 등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는 리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의 의료봉사는 가정에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적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로인과 부양자들이 늘어나며 집안에서 안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의료봉사에 대한 요구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오늘 세계는 공화국의 의사담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가는 고마운 인민적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활력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는 근로자들

—류경치 과병원에서—

오 만 과 편 견

최근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하며 갖은 꾀를 다 써 놓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박 소동에 더욱 혈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독특한 주견이나 자주성이 없이 미국의 말과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국자들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자위적 조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당연한 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권과 평화와 생존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지켜줄 수도 없다. 더우기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침략을 당해도 어디 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의 힘밖에 없다. 공화국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것도 미국의 거듭되는 핵 위협에 맞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에는 어느 나라는 대륙간탄도로켓을 쏘도 되고 조선만은 쏘면 안 된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없다.

《세계적인 위협》이니 뭐니 하며 황당한 거짓여론들을 내뿜고 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어떤 공정성도, 정의도 없는 깡패식 논리이고 꾀변의 극치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을 포함하여 6개 나라이다. 다른 5개 나라들은 이미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번도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소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하고 해마다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 번에 걸쳐 연속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때 미국은 저들이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 대해 백악관의 관리를 내세워 《일상적인 일》이라고 뻔뻔스럽게 표방

하였다. 보는 것처럼 미국은 자기 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는 일상적인 일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유독 우리 공화국의 시험발사에 대해서만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부각소동을 피워대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공화국이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때마다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 날뛰었다. 사실 국제평화를 해치고 인류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세계에 서 제일 많은 핵무기와 각종 핵운반수단들을 갖추고 침략과 살인을 밥먹듯 하고 있는 미국이다. 2014년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총 4 650여 개, 그중 실전배치된 것은 2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핵탄두를 탑재한 핵전략잠수함에 60% 이상이 조선반도 주변해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은 핵무기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수많은 나라들을 핵공갈하고 위협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마구 침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그 어떤 침략행위도 유엔에서 규탄받고 제재당하지도 않았고, 이번 문제시되고 제재대상이 되어야 할 것들은 당분간은 울

려놓고 자위를 위한 정당당한 공화국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줄곧 불법시하고 갖은 제재소동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꾀변이고 2중 기준의 극치이며 너무도 불공평한 미국인발주의, 령강우선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미국의 《독립절》인 7월 4일에 진행한 것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이다. 미국은 침략과 약탈로 살찌여온 악의 제국이며 더 우기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가 어떻게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이 《세계를 위협》한다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가. 그것은 워싱턴에 비가 내렸는데도, 서울, 베를린을 비롯

하여 행성의 모든 곳에 비가 내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 우매한 주장이다. 소위 발전과 문명을 제창하는 나라들이 삼척동자도 웃을 이러한 추태들을 부리는 것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며 친미굴종에 빠지고 미국식 강권에 놀리워 허튼 소리를 마구 해대는 희비극이라 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공화국의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은 《세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침략과 약탈의 원흉인 미국의 손발을 쏘아 끊어내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는 보검이며 그 정의의 사명감을 적대세력들과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절대로 가리워질 수 없고 달라질 수도 없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역풍이 불어도 자기가 선택한 정의의 길,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는 평화수호의 성새로 우뚝 솟아 빛나게 될 것이다. **황금철**

최근 미국방장관 마티스가 자기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북핵문제》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댔다. 6일 마티스는 공식석상에서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더니 《미국을 전쟁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한 것은 아니다.》, 《경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떠벌이였다. 이에 앞서 있는 기자 회견과 미하원 청문회 등에서도 《북과의 전쟁은 최악의 재앙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중론》을 내들었다. 문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 이후 미국대통령과 미국무장관,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국의 고위당

자들이 저마끔 《강력한 조치로 북의 책임을 물겠다.》, 《미국이 가진 막강한 능력은 군사력이며 필요하다면 그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고야대고 미전략특검기 《B-1B》 편대가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물들에 대한 타격훈련을 벌여놓고 있는 때에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은 신형 초대형 버키버스터 공격과 잠수함발사 순항 미사일 공격, 《B-52》 전략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에 의한 공격 등 《3중습습》으로 될 수 있다.》고 평하였다. 미국방장관 마티스로 말하면 만전쟁과 아프가

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광》, 《미친개》로 악명을 떨친 특급 호전분자이다. 미국의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마티스의 입에서는 승냥이가 양의 울음소리 내보려고 하는 《외교적 해결》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여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수단에 의한 공격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벌써 침략의 피수

로서의 미국이 아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 온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은 음흉하고 교활한 정체를 꿰뚫어볼대로 꿰뚫어본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만일 미국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예리한 주시와 멸적의 의지를 오만하고 군사적 선택으로 나온다면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매여달리는 경우 남조선강점 미제 침략군과 태평양상의 미군 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토도 핵분열체속에 영원히 생존 불가능한 폐허로 될 것이라

는 남조선강점 미군부대에 핵무기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 1군단 지휘부에서 280mm원자로와 핵미사일 《오네 스트론》을 실물 공개한 데 이어 5월에는 원자로발사 시험까지 감행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지화정책은 그 후 더 우 로골화되고 끊임없이 보강완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핵포탄과 핵지뢰, 핵미사일 등 각종 핵무기들이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미국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핵무기의 수는 1970년대에는 1 000여 개, 1990년대에는 1 720개를 넘어섰다. 하여 남조선은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 미국의 핵전초 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 정책》을 표방하면서 남조선에 로의 범죄적인 핵무기 반입을 계속하는 한편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습 낙이의 암물음 소리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마티스가 이러한 발언을 해낸 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대미 경각심을 늦추어 놓고 불의에 선제공격을 가하려 하는 음흉한 기만술책, 핵전쟁전주국의 다른 아무 짓도 아니다.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핵 위협은 누가 하는가

최근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두고 반공화국 압살 소동의 도수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누구의 《핵 위협》이니, 《미사일 위협》이니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광분하여 온 미국이다. 그러나 홀러운 력사와 조선반도의 현실을 미국이 떠드는 《위협》 소동이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력사적으로 공화국을 핵위협하고 오늘도 그 위협을 가중시켜 공화국을 핵능력강화로 떠밀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다.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것을 인류의 머릿속에 들이치는 핵범죄자인 미국은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 후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역전되자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1957년 2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모의하고 그해 7월 15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1958년 1월에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 앞서 《평화》 타령으로 내외 여론을 기만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평택이라고 무사하겠는가

지난 11일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부가 통산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 평택기지로 자리를 옮기었다. 평택미군기지 1 467만 7 000㎡로서 해외주둔 미군기지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미국은 남조선의 91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들을 평택과 대수로 집결시켜 유사시 군사작전의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1988년부터 남조선과 통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2003년 4월 통산미군기지를 2018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미군은 《한미련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제외하고 501 군사정보지원단을 비롯한 나머지 부대들과 해군 및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들도 2018년까지 평택미군기지로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미국은 《평택기지

군항을 끼고 있고 철도시설도 갖추었기 때문에 증원전력전개가 쉽고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곳》이라고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떠들고 있다. 이것은 미군의 평택에로의 기지이전이 조선반도에서 북침전쟁의 불을 기어이 지르려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의 산물이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발악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 리면에 감추어진 북침기도는 절대로 가리울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미8군사령부를 평택의 미군기지로 이전시킨 목적은 유사시 공화국군대의 무자비한 타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는 데도 있다. 공화국의 강력한 군력과 무자비한 타격력에 겁을 먹고 있는 미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서울에 있는 미

8군사령부를 보다 멀리 떨어진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의 미군기지로 해서 무사하겠는가. 공화국은 남조선안에 있는 북침전초기지인 미군기지들을 단방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이 《통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 주요 요인이 북의 장거리포와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만 북의 방사포위력이 강화되어 평택은 물론 충청남도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미가 없어졌다.》고 조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금 공화국은 강력한 핵역세력을 지닌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 있다. 최근에 단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땅 그 어디나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머리로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이 날고 있는 때에 공화국의 바로 코앞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질해대고 있는 남조선주둔 미제 침략군이 가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화국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은 남조선과 일본의 미군기지들과 팍도를 비롯한 태평양 전구안의 미군기지들, 미국 본토까지 핵조준경안에 집어넣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쭉춘 미제 침략군은 이전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남조선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그 어디에 있건 백두산강군의 멸적의 조준경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리철남**



본사기자 리철민

최근 남조선에서 친미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이 대참패한 후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라!》는 구호 밑에서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는 초등학교,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예술인, 교수 등 각계각층이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지어 보수경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늙은이들도 적극 합세해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진보적인 군소정당들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는 물론 민주로총과 《한국로총》도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십개에 달한다. 투쟁참가자들

들은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의 부역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사회의 암적존재》, 《강통정당》, 《국민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당》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가입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초보민심이 바라는 개혁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 《모든 고통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나서자》 등의 글들을 대대적으로 올리면서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노컷뉴스》를 비롯한 진보 및 중도경향의 언론들도 《박근혜해체불이 (자유한국당) 해체초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분노가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는 등으로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소식을 널리 보도하고 있다.

특히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경상도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경북민권연대,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경남운동본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를 비롯한 경상도지역의 수십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22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자유한국당》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2일까지를 《자유한국당해체투쟁월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박근혜의 정치적으로향이라고 하는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자유한국

당해체를 바라는 대구시민모임》을 별도로 내고 투쟁에 나섰다. 가 하면 경상도지역 주민들은 열마전 집회명칭을 《열음》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 OUT!》라는 글이 새겨진 열음구호판을 들고나와 《초불로 박근혜를 녹여버렸다》 이번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내 고향 경상도가 쪽팔린다.》, 《대구시민의 명령이다!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정치집단》, 《평화와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결과 분열에만 매달리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안보타령, 각종복합기와 같은 색깔공세에 더이상 속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것》이라고 결의해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구시민들은 열마전 집회명칭을 《열음》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 OUT!》라는 글이 새겨진 열음구호판을 들고나와 《초불로 박근혜를 녹여버렸다》 이번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을 열구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역정당이 자기터밭에서 버림받는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말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은 친미골종과 파쇼독재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분노의 분출로서 자주와 정의, 민주주의를 기어 이 실현하려는 지극히 의로운 투쟁이다.

따지고보면 《자유한국당》은 《유신》독재부활과 파쇼독압,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민족앞에 온갖 못된짓만 저질러온 극악무도한 반역집단이다. 특히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은 반민족적인 범죄자들의 집합체가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년과 함께 이 미전에 민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살아숨쉬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독사는 열백번 허울을 벗어도 독사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과 《쇄신》을 한다느니 뉘나하며 골백번 쉼처대도 천하의 반역무리인 극우보수패당의 추악한 본성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동족대결과 파쇼독재, 친미사대가 체질화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잔당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도 실현될 수 없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남조선인들이 바라는 초보투쟁의 진정한 승리는 《박근혜적폐 1호》인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거세차게 타번지는 반역정당해체투쟁의 불길



최근 남조선민심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재판 받고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무슨 《건강이상》을 떠들며 추하게 놀고 있다.

박근혜는 변호인을 내세워 발가락을 심하게 상해 거동이 불편하다느니,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이루기 어렵다느니 뉘나하면서 이틀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보수언론들도 박근혜가 구치소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느니, 감방안에서 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재판장에서는 별안간 큰소리로 폭소를 터뜨리는 등 《정신이상증세》가 보인다는 여론을 내뿜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의 수하줄개였던 김기춘도 심장병이 위중하다고 꾀병을 부리고 최순실은 구치소안에서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심문을 제한해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일당이 이처럼 약속이나 한듯이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속심은 뻔하다. 추종세력들의 동정여론을 불리일으켜 병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시간을 끌어 1심구속기간을 넘김으로써 앞으로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아보려는 오그랑수인 것이다.

청와대에 틀고앉아 있을 때는 인민들의 참상에 눈을 감고 신음에는 귀를 틀

어막은채 온갖 악정을 일삼던 암독사가 감방에 처박히게 되자 불쌍한 흉내를 피우며 동정을 구걸하고있으니 참으로 꼴불견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자들이 부리는 추태는 역적년놈들이야말로 낮짱이 골발통보다 더 두꺼운 첩면피한이며 천하의 흉물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

악녀의 노숙

하긴 민생은 팽개치고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혀 견모술수만 쓰던 박근혜일당으로서는 그쯤한 엄살연기같은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패당이 떠드는 《건강이상》라령이 병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거나 재판기일을 끌어 결국은 자택에서 재판받으며 형량을 감소시켜보려는 비렬한 오그랑수라는것을 간파한지 오래다.

박근혜일당의 유치한 연극이 고용변호인들과 친박근혜족속들의 궁공이에 따른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박근혜일당은 알팍한 술수로 민심을 기만하려 할것이 아니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것이 마땅하다.

악녀의 노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민

무성생식은 한 개체의 몸에서 일부가 떨어져나와 새로운 개체로 되는 번식 방법입니다.

생물계에서는 아메바나 유글레나, 파라메슘과 같이 단세포로 된 가장 간단한 하등동물들이 이런 방법으로 번식합니다.

현재 최근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이런 하등동물들처럼 번식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마전 남조선에서는 일부 보수세력들이 모여앉아 《보수신당창당발기인대회》라는것을 벌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한애국당》이라고 그럴듯하게 명칭을 붙인 보수정당을 내왔답니다.

현재 이 《대한애국당》이라는게 박근혜의 턱찌기를 얻어먹으며 온갖 추악한짓을 다 해온 인간추물들의 집합체입니다. 여기 모인자들도 말하면 회세의 악녀인 박근혜를 신주모시듯 하면서 역적년의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짓어대는 란동을 부려민심의 구판조소를 받아온 하나같은 인간쓰레기들이니 말입니다.

나오자부터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겠다.》고 악을 써대고있는데는 것이야말로 눈뜨고 못봐줄 꼴불견이라 사람들은 더러워 《도르래국당》이라 침을 뱉고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애국당》이라는게 보수의 무성생식

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로해서 지금 보수의 몸통은 반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크게 4개로 갈라졌습시다.

지난해 박근혜사태로 하여 성난 민심의 파도는 보수세력들을 사회밖으로 밀어내고있으며 그로 하여 보수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버렸습시다. 지금도 남조선의 여기저기에서는 보수를 《추모》하는 《행복한 장례식》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와 배척은 곧 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만필

《 똑 같 에 ... 》

죽음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보수》, 《신보수》, 《혁신》이니 뉘나 하며 무성생식을 하고있는것입니다.

한때는 한몸통이 되어 추잡하고 괴롭힌 행위를 다하더니 《박근혜사태》, 《공범당》의 오명을 피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수염을 빼 씻고 돌아앉아서는 《바른정당》이라든지.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위외됩니다.

《깨끗한 정치를 한 다.》, 《국민의 편이다.》 그런식으로 갈라져나가더니 벌써 4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몇개나 나올런지... 말로는 《혁신》이요,

《쇄신》이요 하지만 그식이 장식이라고 조금도 다른것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시다.

보수의 고질적인 악재인 싸움질에서는 누가 하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탄핵을 계기로 서로가 상대방을 《구태정당》, 《가짜 보수정당》, 《망조가 든 당》 등으로 몰아대며 목소리를 높였는가 하면 저마끔 《보수의 구심체》로 자처합니다.

《대선》을 계기로 그 싸움질은 막말을 해대며 물어뜯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시다.

《바른정당》은 《대선》패배를 《력대 최대의 보수참패》, 《보수의 कै로 규정하고 《친박이 죽음의 구렁이를 파놓았다.》, 《몽둥이로 대갈통을 박살내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몰아냈습시다.

또 《자유한국당》은 《도운은커녕 부담만 주었다.》, 《책임한계를 명백히 가르자.》고 《바른정당》에 뒤지지 않고 맞섰습시다. 역시 개싸움질을 타고난 본성으로 하는 《새누리당이었던》입니다. 또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저들만 살아남겠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쓰고 서로가 《권력에 확장한 뜻

내기들》,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던것들》이라며 목대에 피줄을 돌구더니 갑자기 《범보수단결》이니 뉘나하며 《련대론》을 웨칩니다.

민심이 말하듯이 《어차피 합칠거당》입니다.

부패보수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체면을 가릴 형편이 못되는가 봅니다.

역시 권세욕과 집권욕에 서는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한몸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승악이 되어 날뛰는 꼴이

당》과 같은것들은 《혁신》도 《변화》도 없는 똑같은 보수의 유전적구조를 가진 떨어질수 없는 한 몸통입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민심의 비난을 피해보자고 《혁신》이니, 《신보수》니 하며 없는 연기술을 쓰기 보다는 솔직하게 《실은 똑같은》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원체 할짓, 못할짓을 꺼리지 않는 치사하고 너질한것들이어서 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하는 변신과 파라메슘도 놀랄 보신의 능수들이 보수세력들입니다.

하지만 뉘 그런다고 민심의 눈과 귀를 속일수가 있겠습니까.

저마끔 살아보겠다고 허울을 바꾸고 변신을 해대는 보수의 분렬에서 보이는것은 보수의 종말입니다.

초보민심은 박근혜뿐 아니라 사람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보수세력들에게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습시다. 박근혜와 똑같은 패륜패덕과 동족대결광신자들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대한애국당》과 같은 추물들이 성난 민심에 어둠속에 숨어있다가 바퀴처럼 계속 기어나와야 사회만 어지럽힙니다.

살아보겠다고 별의별 재간을 다 부릴수록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에게 차례질것은 성난 민심의 매질뿐입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대한애국

황진옥

민족의 향취 어린 음식

그늘에 앉아있어도 등골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삼복철이 시작되었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한해중 제일 무더운 삼복철에 더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단고기국이나 소고

기매운탕, 삼계탕, 팔죽, 파국 등을 만들어먹었다. 《이열치열》이라고 열로써 열을 다스리고 더위로써 더위를 물리치는 음식 가운데서도 단고기국을 으뜸으로 일러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선조들이 단고기를 식용으로 리용해온 역사는 매우 오래다. 충청북도 공주시 석장리유적 구석기시대 움분화층 집자리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5만년전~1만 5천년전인 구석기시대후기에 우리 선조들이 단고기를 식용으로 리용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라신시 굴포리 서포항유적,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1문화층 등 신석기시대유적들에서 드러난 유물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단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판습은 고대와 중세를 거쳐 우리 민족의 공한 전통습으로 더 한층 굳어졌다. 《고려사》에 13세기 후반기 군부판서벼슬을 지낸 김문비라는 사람이 늘 단고기를 붙에 구워 내나무칼로 툴을 끊어 버리고 먹곤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에 단고기 음식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맛과 영양가가

단고기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건강음식으로 유명하다. 《동의보감》에 단고기는 성질이 덥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며 비장과 위를 든든

단고기음식은 조선봉건 왕조시기에 이르러 민간에서는 물론 궁중에서와 량반들도 즐겨먹는 음식으로 되었다. 1795년 정조왕의 수라상에 오른 음식을 적은 《원행음표정의의례》에 단고기찜이 보이는데 하면 《효종실록》에 1649년 강원도 감사로 있던 한 관리가 나라에 슬픈 일이 있는 때임에도 공식화석에서 단고기추렴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우리 나라에는 단고기음식과 관련된 흥미 있는 일화들도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한창 단고기추렴을 하고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독수리가 한 사람의 얼굴을 핏물과 달아나자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독수리를 홀려 잡은 일화라든가 조선봉건왕조시기 해학가로 유명한 봉이 김선달이 피를 써서 량반들이 먹으려던 단고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뛰어난 보신탕

하게 하고 기력을 돋군다고 써여져있다. 민간에서도 단고기를 먹으면 더위로 허약해진 몸을 추세우고 허탈이나 영양실조를 막을수 있다고 일러왔다. 단고기에는 비타민 B₁,

B₂, A, PP, E와 칼슘, 마그네슘, 철, 린, 아연과 같은 광물질,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단고기 기름은 녹음점이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여 소화흡수율이 높은것이 특징이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삼복철에 단고기를 먹고 땀을 내면 더위가 가서지고 보신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떨어저도 약이 된다》, 활짝 꽃피어나는 단고기음식문화

활짝 꽃피어나는 단고기음식문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고기음식전통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에서 더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단고기를 끓일 때 방아판을 꼭 넣어야 한다고, 방아판은 우리 나라 어디서나 잘 자라는 다년생식물로서 일명 배초향이라고하는데 단고기장을 끓일 때 천에 싸서 넣고 끓이면 비린내가 없어지고 단고기장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민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평양시를 비롯한 이르는 곳마다에 단고기집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 운영에 필요한 대책도 하나하나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고기장은 맛이 좋을뿐 아니라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건강회복에 널리 리용되여왔다고 하시면서

《삼복에 단고기장을 먹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단고기음식을 삼복철보양음식으로 정하고 먹어오는 과정에 평안도에서는 단고기에 된장을 풀어두고 끓이고 함경도에서는 소금물에 한번 삶아낸 다음 그 물을 짜워버리고 새 물을 부어 끓이며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남새와 밀가루를 넣어 단고기장물을 걸쭉하게 끓여먹는 풍습도 생겨났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단고기장을 즐겨 먹어온것만 보아도 우리 민족은 식생활면에서도 총명한 민족이라고 말할수있다. 공화국에서는 전통적인 단고기리리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전국규모에서 단고기리리경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찌는듯 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각지의 단고기집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 그뿐이랴. 어느 가정에서나 식구들이 모여앉아 어머니나 안해의 로리솜씨가 깃든 단고기음식들을 달게 드는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다. 실로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개화만발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음식풍습과 더불어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의 한 단면이다.

사회과학원 민족학연구소 연구사 박승길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3)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대문안으로 들어선 학재는 한동안 눈이 부시여 어리둥절하였다. 한다하는 외국장사치들과의 교역을 시작할 때에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지만 이내 그쯤한것들에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된 학재였다. 그런데 이 량반택은 장농의 금은장식은 물론이요 주렴 또한 광택이 유난하여 눈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앞이 다 캄캄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가을날의 시들한 바람이 온몸을 시원하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학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기 시작했다.

《어서 일어나게, 그래 나를 왜 찾아왔대구?》 제법 재상이랍스기 위엄있으면서도 야랑기어린 어조로 묻는 한명회의 물음에 한껏 긴장해있던 학

재는 다소 마음을 누착히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소인에게 특별한 리유는 없소이다. 단지 대감님의 명성이 이 한양땅은 물론이요 저 멀리 시골에까지 자자한지라 그 인품이라두 한번 뵈옵자구 이렇듯 무덤한 걸음을 하였사옵나이다.》 《허, 그거 고마운 일이로군.》 한명회는 취주는듯싶은 학재의 말마디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듯 이 한마디 건설로 내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라산밖은 장사치가 자거나 취울리자고 어려운 걸음을 하였을리는 만무한지라 한명회의 얼굴에는 이젠 더 예뉘지 말고 빨리 용건을 말해라 하는 기색이 질게 내뱉었다. 한명회는 자기로 된 안석(앉을 때에 몸을 기대는

것)의 왼쪽팔걸이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용건이나 말하지. 이젠 장사지에 싫증이라도 났다는건가?》 그 말에 학재는 도리머리를 하였다.

《재물모으기에 싫증을 느낄 시러베자식놈이 어디 있겠소이까. 실은...》

《실인즉은 재물을 들쭉 모았으니 이제는 벼슬자리 하나 하고싶다 그말이러다.》

한명회가 지레짐작을 하며 앞질러 말했으나 학재는 거기에도 도리머리를 하였다.

《벼슬은 웬 벼락맛을 소리오이까. 원 참, 대감님두, 소인의 집안래력이 원체 쟁인바치오니 벼슬같은 소리는 어림두 없는 소리인줄 아오이다.》 장사군답지 않은 학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막걸리를 많이 만들어 먹었다.

막걸리는 같은 주정의 다른 술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하게 좋다.

막걸리는 알콜도수가 낮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람에게 유용한 필수아미노산이 1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실례로 단백질이 청주

의 천진한 대답에 한명회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세상에 벼슬을 싫어하는 놈도 있는고? 불학무식한 쌍놈은 할수 없군. 주겠다는 감투도 마다하니 원, 쫓—쫓... 그럼 도대체 네놈이 들고온 내속이 무엇이란 말이냐?》 한명회가 이렇듯 맞대놓고 쌍놈이라고 하대하



는네는 학재의 속도 편할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내색은 전혀 없이 무언인가 주저주저하는 기색만 내보이었다.



평양시 료문동 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새로 훌륭히 건설되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하고있다. 근 1만 2 000㎡에 달하는 면적에 일떠선 공원은 교통안전교육관과 야외교통안전실습장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교통안전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교통공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희를 하면서 교통규정을 익히며 그것을 지키는 정신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공원이다.

평양시와 서성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착공의 삽을 박은 때로부터 6개월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완공된 어린이교통공원은 지금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찾아와 교

통안전교육을 받고있다. 야외교통안전실습장은 지능개발구역, 유희놀이구역, 모래놀이터, 자동차놀이장, 체력단련구역으로 되어있으며 이밖에 완구상점과 청량음료점도 있다.

공원의 가는 곳마다 《자동차의 발전력사》, 《어린이교통사고요소》, 《교통신호등의 유래》, 《휘발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가?》, 《빨리 멈추자면?》, 《언제면 만날가?》, 《물을 연료로 쓰게 만드는 방법》 등의 물음판과 알림판들이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걸려있어 누구나 쉽게 교통규정과 상식들을 습득할수 있다.

《19세기 50년대초에 영국 런던거리에서 처음으로 오늘과 같은 장방형표식으로 된 건늬길표식이 나왔으므로는 지금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찾아와 교

에 잘 띄운다고 하여 얼룩말선이라고 하였답니다. 이 선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건너다닐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줄뿐아니라 운전사들에게는 <속도를 늦추라>, <행인들을 조심하라.>는 신호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너교통보안원이 공원에 온 유치원꼬마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도 이채롭다.

《그전에는 유치원에서 교통규정을 알려주던것이 이제는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놀이자동차도 타고 자전거도 타면서 공부를 하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모란봉구역 유희유치원 교양원 강현욱의 말이다. 새로 일떠선 평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민족음료 막걸리

에 0.5%, 맥주에 0.4%, 소주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지만 막걸리에는 1.9%나 들어있다.

또한 막걸리에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B복합체와 0.8%가량의 유기산이 들어

있는데 이 유기산은 새콤한 맛을 내며 갈증을 멎게 할뿐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막걸리는 암을 예방할뿐 아니라 갱년기장애에 효과

통을 일으켰다.

《어떤 물건인가?》 (흠, 물건깡엔 구미가 동하는 모양이지.)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것이 마음에 흡족하여 학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나갔던 학재는 잠시후 집

《이건 무언가?》 한명회가 의아해하면서 도 못내 궁금한 어조로 물었다.

《이 세상에 흔치 않은 아주 진귀한 병풍이옵나이다.》

《흔치 않은 진귀한 병풍이라구?》

학재가 병풍을 다 퍼놓자 한명회는 호기심에 끌려 병풍을 세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기 집

가 있으며 간에도 좋다. 이같은 효능은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주로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잘 흔들어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지금 막걸리는 달달한 맛과 낮은 도수, 그 영양성분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즐겨마시는 음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비가 내리는 강기슭 바위우에서 우장을 쓴 한사람이 낚시질을 하고있었다. 낚시대를 드리운채 무슨 생각이 그리 깊이 잠겼는지 고기 한마리가 미끼에 물려 푸들거리는데도 낚시군은 이를 아는지 마는지 전혀 무표정한 얼굴빛이었다. 가로 치솟은 눈매는 보기에도 사나웠고 팔자로 내리뻗은 수염 역시 창끝같이 날카로웠다.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손끝으로 턱수염을 매만지던 한명회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대관절 누구인가?》

그 물음에서 학재는 벌써 속으로는 병풍을 마음에 있어한다는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대감님의 마음에 드신것으로 알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겠소이다. 이 사람인즉은 옛날

나라의 강태공이란 사람이온데 임금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크게 공을 세우고 재상이 되었다 하오이다.》